

대학사회, 이래도 되는가

이 이 화

역사문제연구소 고문



필자는 오늘의 대학사회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지성의 전당이니, 진리의 상아탑이니 하는 상징어들에 비해 너무나 걸맞지 않은 행태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교수채용 비리를 들어본다. 교수채용의 조건으로 금품을 받는다니, 이야말로 장사꾼 집단의 윤리에도 어림없이 못 미친다. 재단이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선점한 선배 교수들이 여기에 한몫 끼어 들었다면 타락의 극치일 것이다. 이런 교수들이 어떻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겠는가?

그런데 더욱 심각한 폐단은 여기보다 다른 데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에 학교 파벌이 극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어느 국립대학의 교수채용은 자기 학교 출신이 90퍼센트를 넘게 차지하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이에 덩달아 다른 대학에서도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어느 학과는 어느 대학 출신들이 잡았다느니, 어느 대학 총장은 어느 학교 출신이 아니면 선출되지 않는다는 따위의 소문은 결코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공평한 기준과 학문적 수준이 끼어들 틈이 없다. 학교 파벌이 모든 기준과 수준이 된다. 여기에 재단 이사장이나 총장의 아들 며느리들이 편법과 불법으로 교수로 임용된다. 이들은 뒷날 예비된 총장이다.

또 이보다 더욱 폐단을 낳는 채용도 있다. 관계에서 고위직을 지냈거나 무슨 권력기관에서 간첩을 다루던 정보원도 교수로 임용받는다. 이들은 겉보기에 학위도 있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문분야의 실무경험도 풍부하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회에서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거나 온갖 비리와 파행을 저지른 인사들이 많다.

대학의 진리탐구가 이들의 입과 손으로 진행되어서는 그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을 것이다. 대학 교수는 어떤 특정인사들의 취직자리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들의 역할은 학문의 탐구나 논리정연한 강의보다도 재단의 비리를 덮는 일에 동원되거나 대학의 이권을 얻는 일로

비를 맡는다고 한다.

이런 인사들이 대학 교수로 군림하고 있으면서 학자 대접받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이들은 걸핏하면, “평생 권력과 재물을 떠나서 학문에 종사했어.”라거나 “형극의 학문 길을 한 평생 걸었네.”라고 말한다. 정말 그렇게 존경받을 일을 해왔던가?

연구비를 얻어와서 자신의 학문 성과나 논지를 펴기보다 제자들을 시켜 자료를 모아 적당히 모아 자이크하고는 연구비를 몽땅 차지한다. 연구비도 나누어 먹기로 분배한다. 물론 연구비라야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리고 회갑이나 정년을 맞이하면 논문집 만들기를 바라거나 부추긴다. 제자나 후배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논문을 써내야 한다. 강사급의 제자는 여기에 논문을 실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 교수 임용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 논문집은 순수한 학문적 업적을 집대성한다기보다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폐단일 것이다.

이런 교수들은 한번 임용되어 어찌다가 구색을 맞추어 논문을 써내면 정년을 보장받는다. 그러면서 장관 같은 자리를 준다고 부르면 잭싸게 뛰어간다. 장관에서 밀려나면 다시 유유히 빛바랜 노트를 들고 대학으로 돌아온다.

이런 현실이니 대학사회는 정체를 면할 수가 없다. 학자를 지망하는 연구자들은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박사학위를 얻었으나, 대학 교수의 길은 너무나 막혀 있다. 그래서 강사로 40세가 넘도록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극심한 좌절감에 빠진다. 대학사회는 고식과 고루에 빠지고, 참신성과 진취성을 찾을 수가 없다.

대학생들은 스승을 존경할 줄 모르고 학구에 열중할 의욕을 상실한다. 그러면 대학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어떤 확실한 개선책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이런 현실을 냉철히 반성하고 그 모순을 제거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 대학사회에 채찍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

필자는 대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대학사회를 너무 아는 체한 느낌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 지금도 모든 명리를 떠나 진리탐구에 노력하는 많은 학자와 교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빼놓았다. 그들은 지성의 최후 보루요 시대의 양심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미래를 열 수가 있다. 대학이 죽으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 재단과 대학당국은 역사의 사명감에 좀 더 충실해야 할 것이다. ■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조선후기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이야기 인물한국사』, 『한국의 파벌』 등을 발표했다.